나래국어 2014 서울직 국어 해설

강사 : 이유진 (KG 패스원 나래국어)

2013 서울직 유형 리스트	
1위 어문 규정 – 7문제	
2위 독해 – 6문제	
3위 지식국어(문학) / 어휘 / 올바른 문장 – 2문제씩	
4위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우리말 예절 - 1문제씩	
1. 올바른 문장(단어)	11.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2. 어휘 - 단위어	12. 어휘 + 한자 – 독음 없는 한자성어의 풀이
3.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13. 지식 국어 – 문학(배경이 서울이 아닌)
4. 어문 규정 - 외래어 표기법	14. 지식 국어 - 문학사
5. 어문 규정 - 표준 발음법	15. 독해(문) - 시에 대한 해석
6.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16. 독해 - 배열
7. 어문 규정 – 표준어 규정	17. 독해 – 문단의 관계
8. 어문 규정 + 높임법과 우리말 예절 + 올바른 문장	18. 독해 – 배치
9. 이론 문법 – 형태론	19. 독해 – 비판적 주론
10. 한자 (동음이의어)	20. 독해 – 빈관 주론

2014 서울직 유형 리스트 - A책형 기준	
1위 어문 규정 – 5문제	
2위 이론 문법, 한자 – 3문제씩	
3위 독해, 지식국어, 어휘 – 2문제씩	
4위 문법의 여러 영역, 올바른 표현, 문학 이론 - 1문제씩	
1. 어휘 - 한자어	**11.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2. 올바른 표현 – 부사어 호응	**12.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3. 이론 문법 – 의미의 변화	**13. 어휘 - 고유어**
4. 이론 문법 – 형태론(품사)	**14. 어문규정 – 표준어규정**
5. 이론 문법 – 통사론(문장 짜임새)	**15. 한자 – 동음이의어**
6. 어문 규정 - 외래어 표기법	**16. 한자 – 사자 성어**
7. 문법의 여러 영역 - 중의문	**17. 지식국어 – 장르의 특징**
8. 문학 이론 - 수사법	**18. 지식국어 – 현대문학사**
9. 독해 – 이어질 내용의 주론	**19. 독해(문학) – 운문의 시상 전개 방식**
10.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20. 한자 - 한자어**

<2014 서울직 해설 / 더 자세할 수 없다 – 나래국어 해설>

1. ②

[영역] 어휘 – 한자어

[정답해설]

② 종심(從心 좇을 종, 마음 심) : 70세를 이르는 말로, 논어에서 공자가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일흔 살이 되니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오답해설]

① 이순(耳順 귀 이, 순할 순) : 60세를 이르는 말로, 공자가 60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완만하여 어떤 일에 대해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③ 지천명(知天命 알 지, 하늘 천, 가르칠 명) : 50세를 이르는 말로, '하늘의 뜻을 앎'이라는 뜻이다.

④ 불혹(不惑 아닐 불, 미혹할 혹)은 40세를 이르는 말로, '미혹되지 아니함'이라는 뜻이다.

⑤ 이립(而立 말 이을 이, 설 립)은 30세를 이르는 말로, 논어에서 공자가 서른 살에 자립했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 ③

[영역] 올바른 표현 – 부사어 호응

[정답해설]

③의 '모름지기'라는 부사는 '~해야 한다'라는 서술어와 호응이 되어야 한다. (당위 호응)

[오답해설]

① 부사 '절대로'는 서술어 '아니다'와 호응이 된다.

② 부사 '아직'은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않다'와 같이 부정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와 호응이 된다.

④ 부사 '그다지'는 주로 '그러한 정도로는, 그렇게까지는' 이라는 의미로, '~않다'와 호응될 수 있다.

⑤ 부사 '오직'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이라는 의미로, '~뿐이다'와 호응될 수 있다.

3. ④

[영역] 이론 문법 – 의미의 변화

[정답해설]

④ '어여쁘다'는 의미 변화의 유형 중 의미가 이동된 경우이다. '어여쁘다'의 어원은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엿브다'이다. 따라서 '어여쁘다'는 원래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 내지 '예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오답해설]

① '다리(脚)'는 단어의 의미가 확대된 경우로,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지칭하였으나 현대에는 책상 등에도 사용된다.

② '짐승'은 단어의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짐승'은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 '衆生'에서 유래되었으나 현대에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만을 가리킨다.

③ '사랑하다'는 'ᄉᆞ랑-ᄒᆞ다'에서 온 말로, 본래 '생각하다'를 의미하였으나 더 이상 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지금은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다, 귀중히 여기다'를 의미한다.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경우이다.

⑤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이다.

4. ⑤
[영역] 이론 문법 - 형태론(품사)
[정답해설]
⑤ '아름답게'는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이나, 부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기본형 '아름답다'로 품사는 형용사인 단어가 전성어미를 받아 부사어로 활용되는 경우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부사이다.
① '두루'는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② '가장'은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세거나 높게'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③ '풍성히'는 '넉넉하고 많이'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④ '아낌없이'는 '주거나 쓰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5. ③
[영역] 이론 문법 - 통사론(문장 짜임새)
[정답해설]
③ 봄이 되니까 /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오답해설]
나머지는 모두 안은안긴 문장이다.
① 철수는 ([(그 예쁜)→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 관형절, 서술절을 안은 문장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④ 돌이는 ([(지금이 중요한)→때]임)을 직감했다. - 관형절,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⑤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6. ①
[영역] 어문 규정 - 외래어 표기법
[정답해설]
① 외래어 표기법 1장 4항에,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꽁트, 따블, 께임, 삐에로'가 아니라 '콩트, 더블, 게임, 피에로'로 표기하여야 한다.
[오답해설]
② 외래어 표기법 1장 3항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외래어 표기법 1장 3항에는 '받침에는 'ㄱ,ㄴ,ㄹ,ㅁ,ㅂ,ㅅ,ㅇ'만을 쓴다.'고 명시되어 있다. 'ㄷ'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받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외래어 표기법 1장 2항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해당 조항에는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음에 가깝도록 외래어의 1음운을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외래어 표기법 1장 5항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해당 조항에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이미 굳어진 외래어를 발음에 가깝도록 바꾼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⑤ 외래어 표기법 1장 1항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해당 조항에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되어있다.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⑤
[영역] 문법의 여러 영역 - 중의문
[정답해설]
⑤ '그 배'가 배(먹는 배)인지, 배(腹)인지 동음이의어로 인한 어휘의 중의성이다.

[오답해설]
나머지 선지는 모두 구조적 중의성이다.
① 지난번에 만난 것이 '친구'인지, '친구의 동생'인지 수식의 범위가 모호하다. (구조적 중의성)
② 가정에 충실한 것이 '주부'인지, '주부와 남편'인지 공동격 구문(와)으로 인해 수식의 범위가 모호하다. (구조적 중의성)
③ 내가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두 분을 각각 찾아뵌 것인지, '국어 선생님'과 함께 '교장 선생님'을 찾아뵌 것인지 공동격 구문으로 인해 모호하다. (구조적 중의성)
④ '아내'와 '남편'이 모두 '아들'을 좋아하는데 '아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는 것인지, '아내'가 '남편'과 '아들' 중에 '아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인지 비교 대상이 모호하다. (구조적 중의성)

8. ②
[영역] 문학 이론 – 수사법
[정답해설]
'옹기'가 멱살을 잡히고, 따귀를 얻어맞았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擬人化)이다. 선지 ②의 '역사를 굽어본 강물' 역시 '강물'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오답해설]
①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유니폼을 입는 직업을 그만두고, '붓'과 관계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환유(換喩)적 표현이다. (*환유법 : 비유법 중에서 사물의 명칭을 직접 쓰지 않고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일컬어 대유법(代喩法)이라 하는데, 이 중에서 환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③ '돈'과 '명예'와 '건강'의 소중함을 점층(漸層)적으로 강조하였다. (*점층법 :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으로, 작고 약하고 좁은 것에서 크고 강하고 넓은 것으로 표현을 확대해가는 것을 말한다.)
④ 보고 싶은 대상을 서술어의 뒤로 넘긴 도치(倒置)법이다. (*도치법 :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려는 표현 기법을 말한다.)
⑤ '내 마음'(원관념)을 '호수'(보조관념)에 빗대어 'A는 B이다'나 'B인 A'와 같이 A를 B로 대치해 버리는 은유(隱喩)법이다. (*은유법 :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tenor)과 비유되는 보조관념(vehicle)을 동일시하여 다루는 기법이다.)

9. ⑤
[영역] 독해 – 이어질 내용의 추론
[정답해설]
제시된 지문의 주제는 인간이 자신의 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뒷받침 문장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이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지문에서 언급하는 '뇌의 능력'이나 '재능'은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⑤(개성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기 교육)는 지문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하다. .
[오답해설]
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의 두뇌가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탐구할 수 있다.
② 지문에서 자기의 뇌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존재들을 아이들로 한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④ 지문의 내용을 전제로 두뇌 개발이 더 가능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10. ④
[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정답해설]
④ '방끗'은 '입을 예쁘게 약간 벌리며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을 의미하는 어휘로, '방긋'보다 조금 센 느낌을 주는 어휘이다.
[오답해설]
① 입학율 → 입학률
→ '-율(率)'은 '비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일부 명사 뒤에는 '-률'을 붙이고,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받침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는 '-율'을 붙인다. (한글 맞춤법 3장 5절 11항)
② 어린이란 → 어린이난
→ '란(欄)'은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란'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난'으로 적는 것이 옳지만, 한자어와 결합하는 경우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어 '란'으로 적는 것이 옳다. (한글 맞춤법 3장 5절 11항 해설, 3장 5절 12장 해설)
③ 알고도 모르는 채하였다. → 체하였다.
→ '체하다'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 척하다
'채'는 '-은/는 채로', '-은/는 채'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문맥에 맞지 않는다.
⑤ 껍질채 → 껍질째
→ '껍질 그대로'를 뜻하는 말은 '그대로',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째'를 붙여 '껍질째'와 같이 적는다.

11. ⑤
[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정답해설]
한글맞춤법 4장 4절 30항은 사이시옷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⑤ 보기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라는 규정에 대한 예시가 없다. 해당 규정에 대한 예시는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등이 있다.
[오답해설]
① 보기의 예시 중 '바닷가'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바다+가)로, 앞말이 모음 'ㅏ'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보기의 예시 중 '잇몸'은 순 우리말 합성어이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인몸]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③ 보기의 예시 중 '뒷일'은 순 우리말 합성어이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뒫:닐]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④ '전셋집'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ㅔ)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 'ㅉ'으로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 ③
[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정답해설]
③ '지'(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만'(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은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오답해설]

① 옷∨한∨벌∨살∨돈이∨없다. : '한'(수 관형사)과 '벌'(의존명사)은 띄어 쓴다.

② 큰∨것은∨큰∨것∨대로∨따로∨모아∨둬라 : '대로'(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는 체언에 붙여 쓴다.

④ 이∨나무는∨10∨미터가∨넘는다. : '미터'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아라비아 숫자와 쓸 때에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이다.

⑤ 합격했다는∨말에∨뛸∨듯이∨기뻐하였다. : '듯이(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준말인 '듯'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13. ②

[영역] 어휘 – 고유어

[정답해설]

② '윤똑똑이'는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 아니다.

[오답해설]

① 궁도련님 : 1. 종친으로서 군(君)에 봉해진 젊은 사람
2. 예전에, 거만하고 약삭빠른 궁방의 젊은 사람을 이르던 말
3.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③ 책상물림 :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④ 두루치기[1] : 1.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씀, 또는 그런 물건.
2. 두루 미치거나 두루 해당함
3.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

⑤ 대갈마치 : 1. 말굽에 대갈을 박을 때 쓰는 작은 마치
2.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④

[영역] 어문규정 – 표준어규정

[정답해설]

④ '넝쿨'과 '덩굴'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지만, '덩쿨'은 표준어가 아니다.
(표준어 규정 3장 5절 26항)

[오답해설]

①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은 '눈으로 보아 어림잡아 헤아림'을 의미하는 단어로, 모두 표준어이다.
(표준어 규정 3장 5절 26항)

② '보통내기', '여간내기', '예사내기'는 '만만하게 여길 만큼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모두 표준어이다.

관련조항 : 표준어 규정 3장 5절 26항 '예사내기'와 '보통내기'가 널리 쓰이므로 둘다 표준어로 삼는다. '보통내기'와 '여간내기'는 모두 널리 쓰이므로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관련조항 : 표준어 규정 2장 2절 9항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을 일으킨 말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몇몇의 경우가 있다. '-내기' 등과 같이 '여간내기'의 경우도 'ㅣ' 모음 역행 동화가 된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경우이다.

관련조항 : 한글 맞춤법 4장 4절 30항 '예사내기'는 [예사내기]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③ '멀찌감치', '멀찌가니', '멀찍이'는 모두 표준어이다. (표준어 규정 3장 5절 26항)

⑤ '되우', '된통', '되게'는 '아주 몹시'를 의미하는 부사들로, 모두 표준어이다.(표준어 규정 3장 5절 26항)

15. ②
[영역] 한자 – 동음이의어
[정답해설]
② 그는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 옳지 못한 일, 부정(不正)
그 집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 → 불길한 일, 부정(不淨)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한다. → 일정하지 아니함, 부정(不定)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 → 반대함, 부정(否定)

부정(不正) [不 아닐 부 正 바를 정] :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부정(不淨) [不 아닐 부 淨 깨끗할 정] : 1. 깨끗하지 못함. 또는 더러운 것 2. 사람이 죽는 따위의 불길한 일
부정(不定) [不 아닐 부 定 정할 정] : 1. 일정하지 아니함 2. 방정식이나 작도 문제에서 그 답이 무수히 많이 존재함
부정(否定) [否 아닐 부 定 정할 정] : 1.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2. 일정한 판단에서 주사와 빈사의 양 개념이 불일치함

[오답해설]
④⑤ '부정(不貞, 不 아닐 부, 貞 곧을 정)'은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일'로, '흔히 아내(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는 일'을 이른다.

16. ①
[영역] 한자 – 사자 성어
[정답해설]
① 桑麻之交(상마지교) :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삼아 지낸다는 뜻으로, 권세와 영달의 길을 버리고 전원에 은거하며 농부와 친하게 사귄다는 의미
[오답해설]
나머지 선지는 모두 '벗과의 깊은 사귐'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이다.
② 刎頸之交(문경지교) : 목을 벨 수 있는 벗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벗
③ 膠漆之交(교칠지교) : 아교와 옻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매우 친밀한 사귐을 이르는 말
④ 金蘭之交(금란지교) : 단단하기가 황금과 같고 아름답기가 난초 향기와 같은 사귐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간에 서로 마음이 맞고 교분이 두터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 나갈 만큼 우정이 깊은 사귐을 이르는 말
⑤ 水魚之交(수어지교) :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임금과 신하 또는 부부 사이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르는 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를 일컫는 말

17. ④
[영역] 지식국어 – 장르의 특징
[정답해설]
군담소설은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이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역사군담소설·번역군담소설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유충렬전(劉忠烈傳)》, 《이대봉전(李大鳳傳)》 등의 가공적 영웅을 허구화한 소설을 창작 군담(創作軍談)소설이라고 한다.
④ 대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모호하며, 중국소설의 영향으로 공간적 배경을 중국으로 삼은 것이 많다.

[오답해설]
① 창작군담소설은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한 전기(傳記)적 구조를 따른다.
② 창작군담소설은 민간에서 널리 읽혀졌다.
③ 영웅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보이는 대목이 많아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 전기적(傳奇的)
⑤ 창작군담소설이 출현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하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1794년에 쓰여진 야마다(山田士雲)의 <상서기문 象胥記聞>에 <소대성전>·<장풍운전> 등의 작품명이 등장하고 1736년 중국에서 간행된 <설인귀정동전 薛仁貴征東全傳>의 영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18세기 중엽 이후에 창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①
[영역] 지식국어 - 현대문학사
[정답해설]
① '동반자 작가'란 1930년대 전후에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동조한 작가들의 총칭이다. 유진오, 이효석, 박화성, 채만식 등이 있다. 김동리와 김유정은 동반자 작가가 아니다.
[오답해설]
② 창작군담소설은 민간에서 널리 읽혀졌다.
③ 영웅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보이는 대목이 많아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 전기적(傳奇的)
④ 1930년대에 카프가 해체되고 목적 문학이 퇴조하면서 다양한 유파가 등장하였다.
⑤ 1930년대 대검거령에 의해 1931년 1차, 1934년 2차 검거를 거쳐 1935년 공식 해체되었다.

19. ①
[영역] 독해(문학) - 운문의 시상 전개 방식
[정답해설]
① '산'에서 '청운사'로, '느릅나무'에서 '청노루'의 '눈' 속에 '구름'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20. ③
[영역] 한자 – 한자어
[정답해설]
③ '편력(遍歷, 遍 두루 편, 歷 지날 력(역))'은 '이곳저곳을 널리 돌아다님, 여러가지 경험을 함' 이라는 뜻의 어휘로, 해당 예문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오답해설]
① '가상(假像, 假 거짓 가, 像 형상 상)'은 '객관적 실재성이 없는 주관적 환상'이라는 뜻으로, 해당 문장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한자어이다. '가상현실'에 들어가야 할 '가상'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이라는 뜻의 '가상(假想, 假 거짓 가 想 생각 상)'이 들어가야 한다.
② '눈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뜻을 가진 '가시(可視, 可 옳을 가, 視 볼 시)'가 사용되어야 한다. '가시(可示, 可 옳을 가, 示 보일 시)'는 존재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④ '사실보다 지나치게 떠벌려 나타냄'을 의미하는 '과장(誇張 誇 자랑할 과, 張 베풀 장)'이 사용되어야 한다. '과장(誇長, 誇 자랑할 과, 長 길 장)'은 존재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⑤ '통찰(通察, 通 통할 통 察 살필 찰)'은 '통람(通覽 :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훑어봄)'과 같은 뜻으로 예문의 맥락과 다르다.